

광주기독병원노조 “병원장이 나서라”

노조 측 ‘끝장 대표교섭’ 제안

병원 측 “노조 제시안 지나치다”

2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기독병원 노조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장이 나서야 한다며 ‘끝장 대표교섭’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17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용수 병원장은 파업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 측은 8번에 걸친 산별현장교섭과 이후 이뤄진 조정회의에서 어떤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무교섭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병원장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병원장은 병원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노사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부서장 모임 등에서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라며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은 최 병원장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파업이 10월 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환자의 생명을 불모로 파업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박3일 끝장 대표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한 만큼 받고 싶다”며 “지급률” 철폐 등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를 임금으로 받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 기본급의 91%를 지급하도록 한 ‘지급률’이 구조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병원 측은 노조 제시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노조 주장대로 지난 해 병원의 의료수익은 1018억원으로 2017년보다 100억원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보건료정책 변화로 늘어난 인건비, 그 밖에 재료비, 관리비 등 의료비용 지출에 1028억원이 들어 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지속된 적자

가 누적돼 임금인상에 여력이 없다”며 “총액대비 1.0%가 인상될 때 지연승급분(2.3%)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분(1.0%) 등을 포함하면 4.3% 인상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필수유

지업무 부서는 환자 진료에 이상 없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중년의 인생은 지금부터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채용게서판을 살펴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10년...등록률은 27% 그쳐

손금주 의원 “전국 660만마리 중 180만마리 등록”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180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고, 2013년 이후 전 국적으로 의무화했다.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며 “그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

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기준 추정 반려견

현황은 660만 마리(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지만 등록비율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성희룡 제명 목포시의원 가처분신청 여성단체 반발

동료 의원을 성추행해 제명된 김훈 전 목포시의회의원이 의원직 유지를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법원에 “성희룡 가해자 김훈 전 시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전 의원의 가처분신청은 자신의 성희룡 가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은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해 행하는 비뚤한 태도”라며 “건전한 사회 상식을 가진 시민의 자각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1

진도대교 투신 후 실종 남성 1명 시신 발견

진도 진도대교에서 동반 투신 후 실종된 남성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17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8분 진도 별포항 동쪽 1km 해상 김 양식장 그물에 부패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지문 조회를 통해 이 시신이 지난 12일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A씨(35)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투신한 B씨(31)가 해상에서 표류 중일 것으로 보고 해상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2시12분 서울 출신 A씨와 전주 출신 B씨가 진도대교 인근에 차를 주차한 후 대교에서 해상으로 동반 투신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사건 당일 이들을 목격한 후 4일이 지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 차가 주차돼 있자 수상히 여겨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차 안에서 휴대폰 2대, 지갑 1개, 소주병과 번개탄 등을 발견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진도대교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상수색에 돌입했다.

영광 한빛원전 상공 드론 띄운 40대 검거

‘급 국가보안시설’인 영광 한빛원전 상공에 출몰한 드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40대를 붙잡았으나 ‘야간 드론 비행’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경찰서는 17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수차례 드론을 띄워 8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 야간에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경찰이 추적 중이던 드론 조종사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목격 시간이 다르고 드론 비행 기록과 영상도 달랐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용 사진을 찍기 위해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띄웠고 원전 방향이 아닌 인근 풍경을 촬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남지역 항공 운영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에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야간 드론’ 조종사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담배 피우지마라” 말에 식당주인 딸 폭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단골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식당 주인의 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며 흡연을 금지하는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의 딸 B씨(21)의 얼굴을 2회 밀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금지당한 후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또다시 식당에 앉아 흡연을 시도하다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아파트 터파기 현장에서 박격포탄 발견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포탄이 발견됐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길이 30cm가량의 박격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포탄이 발견된 공사 현장은 예전에 박격포 사격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탄은 발견 당시 부식이 심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군 당국에 인계할 계획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